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하며 현대적인 자크생산공정, 멜라멘수지제품생산공정 등을 더 갖추어 놓음으로써 기념품만이 아니라 갖가지 인민소비품들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전면시킴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방대한 규모의 개진공사와 현대적인 자크생산공정, 멜라멘수지제품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고 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태어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1984년 8월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

다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자크생산공정, 멜라멘수지제품생산공정, 기념품생산공정, 제품건본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가방, 신발, 체육용품 등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수지자크, 금속자크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제직기, 성형기, 봉조기, 절단기, 검사기를 비롯한 모든 자크생산설비들이 최신식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부속자재를 리용하여 자크를 생산하고있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고, 당의 국산화방침관철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자크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

시면서 학생가방과 교복, 신발은 물론 여러가지 인민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크들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국산화된 가방용천생산공정을 꾸려놓는데 이어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 우리 식의 자크생산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천과 자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보기에 좋고 쓰기에 편리한 멜라멘수지제품생산공정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기념품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자크의 형태와 색깔을 다양화, 다색화할데 대한 문제, 제품질제고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멜라멘수지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관리하며 과학기술보급실업영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

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진된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 현대적인 자크생산공정, 멜라멘수지제품생산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또 하나의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마련되었다고,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공업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것은 날로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훌륭히 개진하는것과 함께 첨단수준의 설비와 기술공정을 갖춘 현대적인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옳바른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 진행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9돛에 즈음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이 4일에 진행되였다. 통일자전거행진 출정식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있었다. 연설들이 있는 다음 《조선은 하나다》, 《통일 6.15》, 《통일아리랑》 등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행진단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평양을 출발하였다. 여러 지역을 통과하여 개성에 도착한 행진단을 개성시 근로자들과 청년대학생들이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반갑게 맞이하였다.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관문점을 향해가는 행진단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낼 굳은 맹세가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며 필생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드립없는 의지를 가다듬으며 관문점에 들어선 통일자전거행진 참가자들은 관문각앞마당에서 조선반

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관문점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친필비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평양에서 출정의 뜻을 올린 통일자전거행진이 삼천리강토를 가로지른 원한의 장벽으로 하여 멈춰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가슴저미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외세를 몰아낸 삼천리강토에 통일축포가 터져 오를 그날까지 애국애족의 한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행진단성원들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남조선피뢰패당이 감

행한 집단유인람치만행의 목적자, 피해자가 발언하였다. 그들은 피뢰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죄악이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난 이 시각에도 눈들은 《자진탈북》이니 뭐니 하는 개나발을 췌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집단람치사건의 진상을 영영 덮어버리며 저들의 만행에 대한 사회적비난과 내외여론의 압력을 모면하려는 또 하나의 비렬한 모략책동이라고 규탄하였다. 정신육체적고통과 박해, 회유기만, 위협공갈을 일삼으며 우리 처녀들에게 귀순을 강요하고있는 박근혜당이야말로 《인권》과 《인도

주의》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는 사람가죽을 쓴 야수들이며 천하의 강패무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뚫어오르는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비렬하고 치졸한 집단람치극으로 절대로 허물수 없다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박근혜패당이 전체 조선민족앞에, 세계방심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할뿐아니라 우리 처녀들을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당장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본사기자



## 거족적인 행진의 끝은 통일

나는 이번에 관문점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성원들이 전체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나는 이것을 매우 긍지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공화국이 제안한 련석회의의 절박성과 정당성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가닿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있다는 생각으로 가슴뿌듯함을 금할수 없다. 삼천리강토와 겨레의 혈맥을 끊어놓은 저주로운 분렬장벽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평화가 열

마나 소중하며 조국통일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사무치게 절감하게 되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을 보기마련이다. 그 끝이 바로 통일이다.

비록 남조선의 반통일대결세력에 의해 통일대회합은 아직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겨레의 불같은 통일열망을 결코 꺾버릴수 없다. 나는 전체 조선민족이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련석회의의 성과적개최와 통일위업실현의 완성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금 열렬히 호소하는바이다.

통일자전거행진단 단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영희

## 통일의 그날까지 달리겠다

이렇게 조국통일행사에 참가하고 보니 통일이 금방 될것같고 통일대통로를 따라 서울까지 가고싶은 생각이다. 통일자전거를 멈춤없이 서울, 부산까지 내쳐 달리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의 통일열기에 화답하고 모두가 따라나서게 하고싶다. 통일의 날은 멀지 않다. 이렇게 온 민족이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를 소리높이 부르며 하나로 뭉쳐 싸운다면 내외반통일전쟁세력도 어쩔수 없고 통일도 우리 힘으로 마중물수 있는것이다. 비록 우리의 통일자전거가 군

사분계선에서 벗어나지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 겨레의 통일행진은 제주도 한나산까지 이어질것이다.

나는 영원히 통일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겠다. 민족의 통일념원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계속 마음속으로 달리며 언제나 심장으로 조국통일을 외우겠다.

아울러 경제인으로서 통일강국건설을 위한 조국인민들의 투쟁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을 적극 찾아야겠다는것을 결의하게 된다.

통일자전거행진단 단원,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주계숙

#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10월에 접어들어 사람들의 심신에 활기가 넘치는것은 천고마비의 풍요한 계절때문만도 아니다. 조선로동당 창건일을 뜻깊게 기념하는 10월이어서 기쁨은 한껏 류다르다.

10월 10일은 온 나라 남녀로소가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감사의 정에 넘쳐 경축하는 인민의 명절이다.

장장 70여성상 불패의 당, 전도양양한 당으로 존엄떨치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신 조선로동당은 자기 활동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인민위천의 리념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마치와 낮과 붓이 새겨진 조선로동당의 마크는 세계정당사에 전무후무한 어머니당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당을 명실공히 근로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천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철학인 주제

사상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시였고 조선로동당이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도 그이께서 마련하신것이다.

수령님의 당건설위업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애국도 나오고 혁명도 시작된다고 하시며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는것을 자신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시였다. 그이께서 인민은 가장 숭배하는 하느님이였고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였다. 제일 힘있는 존재도 인민,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도 인민이였고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이였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그대로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 인민을 존대하고 인민의 리익을 중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과 활동원칙이 그대로 구현되어있다.

조선에 대한 적대세력의 항

시적인 침략위협과 악랄하고 끈질긴 경제제재와 봉쇄압살책동이 언제한번 가셔진적 없는 속에서도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창광거리와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 주택지구들과 평양산원과 창광원, 룡라다리, 5월1일경기장과 같은 창조물들이 준비하게 일떠선것은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숨죽은 공장들과 어려운 생활난을 겪는 인민들의 정상을 보시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전선에서 전선으로 이어가신 선군길은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길이였다. 나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글자가 남는다고, 애국에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고, 나는 그늘밑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하시며 한생을 초탈처럼 태우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은 조선로동당 성스러운 력사의 갈피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당도 위대하고 당이 정치를 잘하면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것을 이 땅의 현실이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위천의 사상과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 그이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숭고한 리립장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로선이나 정책을 세워도, 하나의 창조물을 만들어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도록 하시며 인민의 편의도모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신다.

인민들이 어는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적이고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는데 지향되고 현실로 구현되고있다.

인민극장,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개건된 만경대유회장과 대성산유회장,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룡라인민유원지,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과학기술전당, 연풍과학자휴양소와 같은 창조물들과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인민적시책들에는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뜨겁게 어려있다.

조선로동당이 내놓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도 나라의 최고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소한 양보도 타협도 없이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으로서 인민의 자주적운명과 존엄,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랑과 헌신의 최고발현이다.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다. 지난 8월말과 9월초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피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를 위하여 국가의 인적, 물질,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최단기간내에 후심한 피해후과를 가지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결심과 작전을 편것은 조선로동당과 같은 위대한 당만이 취할수 있는 중대결단이고 조치이다. 지난해 라선당의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한것처럼 또 다시 복구기적을 창조하여 북변방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 더 윤택한 생활을 안겨주자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로 되고있다.

불도가니처럼 뚫어번지는 북변의 피해복구에서 사람들은 머지않아 새 집, 새 마을, 새거리가 일떠설 두만강연안의 기적적변화를 그려보고있다.

돈으로도 살수 없고 강요로도 얻을수 없는것이 민심이다. 수백년을 헤아리는 세계 정당들의 력사를 살펴보면 근로대중을 위한다며 활동한 당들이 수없이 많지만 조선로동당과 같이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온 나라의 남녀로소부터 어머니당으로 칭송받는 당은 어제도 없었고 오늘에도 없다.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자기 활동에서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당과 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산악같이 떨쳐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는 위대한 혼연일체, 바로 이것이 조선의 힘이고 제일가는 국력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인덕정치를 받들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삼고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는 한 공화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광명한 미래가 있다는 진리를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다시금 굳게 확신하게 된다.

김창국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얼마전 새로 일떠선 보건산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공장,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공장이라고 원수님께서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뜻을 담아 말씀하신것이다.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워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부터 생각하시며 언제어디서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을 인민을 높이는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에 의하여 크지는 않아도 인민들의 건강증진도모에 절실한 보건산소공장이 태어나게 된것이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시려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오늘은 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까지 지어주시였으니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이다.

하나의 대상물을 일떠세워도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완성되었을 때에는 거기서 기쁨에 겨워 웃고 떠들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공화국의 인민들은 날마다 비우고있다.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면서,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보시면서, 8월25일수산산업소에 펼쳐진 물고기대풍을 보시며 그리도 만족하시여 이런 몇에 혁명을 한다고 거듭 뇌이시는 그이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적복무를 일떠세워주시고 기쁨과 보람을 찾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생관, 인민관을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그이께서 넘고 헤치신 령길은 얼마이며 피약별 내려쬐이는 한낮에도, 별들이 총총한 깊은 밤에도, 삼라만상이 단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른 새벽에도 찾으신 건설장은 또 그 얼마인가.

휴먼지 날리는 건설현장에서 인민들이 리용할 유원지의 자모양새까지도 몸소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의료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시려고 비내리는 건설장의 진창길도 주저없이 걸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비오며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하나의 건설대상을 위하여 무려 113건의 형성안을 지도

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부지런히 뛰면서 다 풀어주겠다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부어주시고도 그 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자리잡을

바로 그 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보건시설들도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문수기능회복원,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대성산종합병원, 보건산소공장 ...

엔제인가 류경치과병원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이 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치과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데 있다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보건산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그날에도 현대적인 보건산

##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워도

하고 모든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손색없이 꾸리도록 건설현장들을 찾고 또 찾으신 원수님이시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의 참뜻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사람들은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인민의 행복 창조를 인생의 목표로, 삶의 보람으로 여기시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던 그날에는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다 제

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좋은 의료용산소를 팡팡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것이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이 있어 공화국의 인민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아래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하고 향유해가고있는것이다.

김새벽



# 위대한 어머니 품에 안겨 삽니다

얼마전 저는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아는 애국자들의 반열에 저도 나란히 서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집을 찾아와 축하해주었습니다.

어느 한 신문사의 기자는 조국의 품에 안겨 생활하면서 가장 감격스럽게 돌이켜보는것이 무엇인가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어언 28년, 그 나날 인생고목에 꽃을 피우며 남조선에서는 꿈조차 꿀수 없었던 북이란 북은 다 받아안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것이 다 감격스럽게 돌이켜 지지만 저는 특별히 강조한다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녔을 때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어머니라 부르는 위대한 당의 품에 안겨사는 무상의 행복과 감격에 겨워 붓을 들었습니다.

\* \* \*

2000년, 세기가 교체되던 잊지 못할 그해의 첫아침을 저는 조선로동당 입당청원서를 쓰면서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열두번째로 맞이한 새해, 인생의 저물녘에 서있던 64살나이에 어머니 치마폭에 안겨드는 철부지마냥 조선로동당을 어머니, 어머니라고 목메어 부르며 쓴 그 입당청원서에 저의 한생의 총화가 비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 앞에는 기름진 초포벌이 펼쳐지고 그 젖줄기라고 할수 있는 소양천이 감돌아흐르는 풍광지대였습니다.

가난한 집의 자손이었지만 온 일가 식솔들의 뒤받침으로 간신히 사범학교문턱을 넘어선 저는 소학교교사에서 중학교교사로, 이후에는 소양천을 벗삼아 끈덕지게 수영을 익힌 덕으로 군산에 있는 수산대학의 체육교수로 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부조리한 사회현실, 항쟁의 거리에서 흉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선생님! 이 썩은 정치를 꼭 뒤집어엎어주세요.》라고 웨치던 학생들의 피의 절규는 저로 하여금 교단을 떠나 투쟁의 길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하여 안기부(당시)지하실에 몇번이나 끌려가 줄경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땅이지만 환멸과 모멸감을 불러주는 원한과 분노의 땅이 남조선이었습니다.

제가 남조선에서 밤낮 인생을 떠드는 정당들에 환멸을 느끼고 그 어떤 정당에도 들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초 광주의 피바다우에 솟아난 전두환 《정권》의 핵심인물이란자가 찾아와 《민정당》에 들것을 요구한적이 있었습니다. 동의만 하면 전라북도 제2지구당 위원장직까지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대학생들속에서 신망이 있다는 교수들을 끌어당기던 《제5공화국》의 지지기반을 다지는데도 효과적일것이라고 타산했던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단호히 거절해버렸습니다.

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기와 협잡질만을 일삼는 정치모리배들의 끌받이 싸움질에 신물이 날대로 난 지였습니다.

언제인가 《국회》의원선거때 여당의 부정협잡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적이 있었는데 투표함을 차로 이송하던중 여당패들이 투표함에서 야당표를 걷어내고 여당표를 넣어 넣어 일어난적이었습니다.

《사대매국당》, 《도적당》, 《성추행당》을 비롯한 각종 오명을

때자국같이 등에 붙이고다니는 이런 오합지졸의 무리가 어떻게 바른 정사를 할수 있으며 또 그런 당들에 사람들이 운명을 의탁할리 만무한것입니다.

환멸이 커갈수록 참된 정치에 대한 갈망은 짙어만갔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북으로 향하는 마음을 달랠수 없었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로동당시대의 번영기를 구가하는 공화국의 소식을 접할수록 하루라도 빨리 그 품에 안기고싶은 열망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으며 여러 나라들을 돌고돌아 마침내 평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6돐을 경축하는 1988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암혹을 박차고 광명을 찾아온 저의 의지를 애국애족의 결단으로 소중히 여겨주며 환영의 꽃물결을 펼쳐 맞아준 그 품이 얼마나 은혜로운 품인지 그때에는 미처 다 알수 없었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한 일군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싶은가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 50고개를 넘었지만 여기 평양에서 두번다시 태어났으니 한살도 되나마나 하다고 우스개소리를 하면서 잃어버린 삶을 다시 살고 싶다고, 남조선에서는 수영덕에 대학교수까지 했는데 변변히 배우지도 못한 처지에 대학교수를 했다고 이야기 하기가 멋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 제가 조선체육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하게 될줄 꿈에나 생각할수 있었겠습니까.

당에서는 체육부문에 종사하면서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싶어하는 저의 소망을 헤아려 그런 특혜를 베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당, 정말 그때처럼 이 말이 심금을 팡팡 울려준적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이 체험한바이지만 조국이 안겨주는 온갖 사랑의 조치들이 당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베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이 영광과 긍지의 상징, 만복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의 은혜로운 빛바래 새 가정에 새집들이경사가 꽃피어나고 태어나는 자식들이 평양산원에서 삶의 고고성을 터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이 되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수 있는것도 당의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체육대학 박사원에서 한껏 무르녹는 인생의 봄시절의 락이란 락은 다 누릴수록 이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일가식술들과 투쟁의 거리를 달리고있을 제자들 생각이 사무쳐왔습니다. 그 마음은 저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체육부문에서가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해 깡그리 바쳐갈 결심을 새롭게 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도 리하나, 리통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저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으로 내세워줄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늦게나마 깨닫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통일성업에 한생을 바친 재북인사들.

당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너무도 한일이 없는 저를 그들과 나란히

리 우

세워주었으니 그 하늘같은 믿음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싶은 심정으로 저는 광복정치의 빛바래 영생하는 재북인사들의 삶을 보여주는 도서집필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도서의 머리글도 서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가 모자라면 자신들의 피를 뽑아 수혈해주고 밤을 새워가며 곁을 떠나지 않는 의사, 간호원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되었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한 일군이 전해준데 의하면 글쎄 조선로동당에서 제가 남조선에서 살면서 쌓인 질병까지 말끔히 고쳐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집필에 필요한 자료들도 보내주고 건강을 잘 돌봐주도록 담당의사까지 불어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감격이 북받쳐 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리르며 울음을 터치고야말았습니다.

조국인민들이 당을 우러러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참뜻이 가슴 미어지게 파고들어 저도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메어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얼마나 우주와 같은 무게를 안고있는 말입니까.

매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정에 사무쳐 부르고 너무도 고생많은 그 모습에 몽클 가슴이 젖어들어 부르며 찾던 어머니.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라는 소중한 부름을 불려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정과 사랑을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새 삶의 축복받은 인생행로를 새기며 다시금 뜨겁게 느끼게 되었으니 어찌 감동이 북받치지 않을수 있었습니까.

비단 저 하나만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이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령명을 꽃피우는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를 높이 부르며 얼마나 크나큰 행복을 누려왔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어렵고 힘겨운 나날에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붉은기가 내리지고 로동계급의 정당들이 붕괴되거나 야당으로 바뀌어질 때 세계는 얼마나 소란스러웠습니까. 하지만 조선로동당은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를 끝까지 수호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과 맞서 판가리결사전을 해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 당은 선군총대를 더 높이 들고 인민의 운명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었으며 고난을 박차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물리치며 언제나 백승만을 떨치는 당, 이렇듯 위대한 어머니가 저의 운명을 보살펴주고 온 나라 인민들의 삶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준다고 생각할수록 당원이 되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엄높은 우리 당의 한 성원이 되어 어머니앞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싶은 심정을 담아 한자한자 입당청원서를 적어나갔습니다.

《... 저는 공화국에서 보낸 10여년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위대한 당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

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안고 영원히 당과 생사를 같이 할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장군님의 제일충신, 충직한 통일전사로 살것을 엄숙히 맹세하면서 조선로동당에 입당시켜줄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주체89(2000)년 1월 1일 리우갑》

어머니당에서는 저의 입당청원을 소중히 받아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국의 품에 안긴 날과 똑같은 아버지수령님 탄생 88돐인 2000년 4월 15일에 조선로동당원의 값높은 영광을 지니도록 하여주었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이 나라 천만자식들이 숭엄한 마음으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목메어 부르며 입당을 청원하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굳건하고 조선로동당원이라는 이름이 그렇듯 성스럽게 불리워지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로부터 10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선로동당원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첫 자욱을 떠던 그 시절을 잊을수 없습니다. 언제나 당원으로서 자기의 본분과 도리를 다해갈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며 오늘도 그때의 소중한 감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백승의 위력을 떨쳐온 우리 당이 또 한분의 천출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존엄과 영광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상은 저의 가슴에 조선로동당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습니다.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시련이 막아셔도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승리와 영광으로 향도하는 위대한 어머니가 우리 당입니다.

그 거인의 손길아래서 만리창공을 헤가리며 날아오른 전철속의 천리마가 오늘은 만리마로 폭풍치며 인민의 보다 밝은 앞날을 불려오고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결코 유엔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대조선 《제재결의》라는것까지 조작해내고 6개월안에 그 무슨 《효포》가 나라날것이라고 떠벌일 때 세계는 얼마나 우리 공화국을 주시하였습니까.

참고이 주는것만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있을 때 우리 조국은 지상에서, 우주에서, 바다에서, 지하에서 승리의 통장훈을 련속 부르며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세계를 경탄시켰습니다.

그 거창한 사변과 더불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인 우리 당은 더욱 신심에 넘쳐 온 나라 인민을 최후승리로 불려일으키고있습니다.

진정 이렇듯 위대한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그 따뜻한 보살핌속에 사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함북도 북부피해지구에서 일어나는 전화위복의 기적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당의 참모습을 만천하에 감동깊이 새겨주고있습니다.

해방후 처음보는 큰물로 대재앙을 당하고 수많은 피해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을 때 하늘도 감복할 위대한 인민사랑의 선언, 어머니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선, 인민복무전이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 당풍이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

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자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구절구절마다에서 뜨겁게 맥박치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은 온 나라를 격동시켰습니다.

인민이 당한 재난을 큰 비상사태로 보고 피해복구전투를 사생결단의 치렬한 전쟁으로 선포한 레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에로부터 자연이 주는 재난은 피할수 없고 가시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당에서는 북부피해지역을 원상복구정도가 아니라 로동당시대의 새 선경으로 더 멋지게 꾸릴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었습니다. 지난해 라선평에서의 전화위복의 기적이 또다시 창조되고있습니다.

힘들고 피로워하는 자식일수록, 멀리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원심을 쓰고 밤잠을 잊으며 그 힘겨움과 피로움을 가셔주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둘어에도 꽃을 피우는 어머니의 그 열화같고 정깊은 사랑이 천만자식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 보살피고있으니 원수님의 사랑, 당의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함복도 인민들이 울고 온 나라가 감격에 설레이고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의 심장속 깊이로 침투하는 길은 여러갈래이지만 그 심장이 받아들이는 통행증은 단 한가지, 진심이라고 쓰시었습니다.

진정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하늘땅을 울리는 사랑의 새력사를 창조하고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무한한 활력과 열정으로 인민을 사랑과 행복의 절정에 세워주는 이런 위대한 당을 어찌 인민들이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우리 인민은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세상이 뒤집혀도 함께 하리라고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영원히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인민의 높이와 무게에 대해 알수조차 없는 남조선의 보수떨거지들이 감히 당과 인민의 분리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그 무슨 《분렬조짐을 보이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잠꼬대같은 녀두리를 하고있다니 정말 우리 조국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정신병자들의 꼴볼견입니다.

당과 인민이 뜻과 정을 같이하는 혼연일체로 굳게 결합된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헛나발을 불어대며 돌아치는 박근혜패당과 같은 천치들의 혼이 쑥 빠지게 이제 머지않아 저 북변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될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이 있기에 삼천리강도에 통일강국이 솟아오르고 최후승리의 추포성이 누리를 진감할 그날도 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이 있다! 시련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역경이 겹쌓여도 이 배심, 이 자부를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품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영원히 당을 따라 한길만을 갈것입니다.

잘난 자식, 못난 자식 탓하지 않고 따듯이 풀어주는 어머니처럼 재생의 기쁨을 안겨주고 오늘은 이렇게 조국통일상수상자로 값높이 내세워준 고마운 우리 당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저는 당의 통일위업을 만드는 성스러운 애국의 길에 여생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필자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임)

세기와 세기가 바뀌는 력사의 분기점인 2000년을 전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는 유리한 내외환경들이 조성되게 되었다.

공화국의 선군정치에 의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게 되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당시)는 대조선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유화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99통일대추전 10차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실현됨으로써 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서 더한층 조직화, 적극화되고 이로 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과 분열을 추구하는 반통일세력사이의 력량관계는 결정적으로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었다.

변천되는 세대의 흐름을 통찰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일군들에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그해 3월 눈보라 휘몰아치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찾으시었

###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 (7)

## 력사를 바꾼 충격과 감동의 55시간

다. 아아한 백두의 산발들을 굽어보시며 온 민족이 지지환영하고 바라마지않는 민족사적대경사를 성사시키실 구상을 무르익히신 그이께서는 드디어 조국통일운동사에 기록될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실 대응단을 내리시었다.

이에 따라 북남간의 실무접촉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제 89(2000)년 4월 8일에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관련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마침내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속에 주제 89(2000)년 6월 평양에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비행장에까지 마중나가시여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일행을 뜨겁게 맞아주시었다. 그 순간은 오랜 불신과 대결의 차디찬 얼음이 따뜻한 해빛을 받아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아

내리던 순간이었다. 평양의 거리거리는 뜨거운 동포애, 통일념원을 안고 손에 손에 꽃뭉음을 들고 뿔쳐나온 수많은 각계층 시민들의 성대한 환영으로 물결쳤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송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뜨거운 동포애,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남조선당국자와 여러 시간동안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이제 공동선언이 나가면 아마 상상이 또 한번 놀랄수 있다고, 북과 남이 민족주체를 찾았다고 할것이라고, 바로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말에 방점이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평양상봉의 55시간동안 온 겨레와 세인을 격동시킨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될수 있는것은 민족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열의와 의지의 산물이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로서 새로운 력사적기원을 연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단합선언이며 통일지향선언이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온 삼천리를 감격과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 학계, 종교계가 앞을 다투어 공동선언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즉각 《이번 합의문은 남북정상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세이군이 주목하는 가운데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대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하였고 야당인 자민련 대변인은 《반세기의 분단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초석을 쌓았다.》고 지지립장을 밝혔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북남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그 력사적의의를 대서특필하였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통일방안의 공동점 모색, 리산가족상봉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당국간 대화 계속 등 5개 항은 (우리도 할수 있다.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것도 비공개장소에서 은밀한 합의를 아니라 생방송으로 전세계, 온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룩한 합의이기때문에 그 약속이 더욱 값지다. 이제 남북관계는 한개의 큰 산을 넘었다. 단 한번의 만남으로 이런 정도의 합의를 도출

해낸것은 수뇌회담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동아일보》 2000. 6. 15),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은 반목과 대립, 대결로 지나온 불행과 과거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에로 나아가 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경향신문》 2000. 6. 16), 《이번 공동선언에서 무엇보다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1항의 (자주)라는 표현과 2항의 통일방안일것이다. 누구도 남북정상이 첫 만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통일방안을 합의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시사저널》 2000. 6. 29),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 자리를 함께 한 날은 2박3일에 불과했다. 55년만의 만남치고는 너무 아쉬울만큼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사이에 《평양대특급》이라 할만 한 세계적작품을 성공리에 완성시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평양대특급》은 《21세기의 마지막막단국가》라는 오명을 청산하는 동시에 팽전시대를 최중마무리하는 기념비적작품이었다.》(《월간중앙》 2000. 8)

전세계도 벽적 뛰어넘었다.

180여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당, 단체 책임자들은 공동선언의 채택을 《세계를 진감시킨 특대사건》, 《김정일각하의 애국애족의 대응단이 낳은 빛나는 결실》, 《조선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 놓고 조선민족앞에 화해와 단합의 문을 열어놓은 결정적계기》로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세계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구에 던진 《평양의 통일핵폭탄》으로 묘사한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

이렇듯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그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 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그것은 조국통일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민족대부분제는 절대로 남의 힘을 빌어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민족분열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나라가 분열되어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는 동족사이 불신과 오해를 가져오며 서로 신뢰하고 화해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적참화를 불러온다.

때문에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자주적운명개척의 힘은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있으며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

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 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우리 겨레에게는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있다.

또한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한 좋은 전례들을 가지고 있다.

지나온 6.15자주통일시대의 북남관계는 바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었고 있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한 문헌은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북과 남에는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

북과 남은 이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만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길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이다.

고영식



### 10.4선언채택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

#### 남 조선 각계가 격찬

송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력사적인 10.4선언으로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남조선 각계가 뜨겁게 칭송하고있다.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2007년 10월 세계를 진감시켰던 그날의 선언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지니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관의 빛나는 결실, 겨레를 위해서는 둘어에도 꽃을 피우시는 고결한 민족애의 산이라고 격정을 표시하였다.

선언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남북수뇌상봉과 10.4선언채

택으로 통일의 해돋이를 마련하시고 통일의 획기적인 구성》, 《통일의 려명을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 등의 글들을 대대적으로 실으며 각계층의 민심을 널리 전해가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남북공동선언들의 채택으로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과 로고는 민족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의 이 믿음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 우리 민족이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신념으로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백두산 장군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그대로이신 김정은위원장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며 선대수령들께서 념원하신 통일의 새 아침등기어 밝아올것이다.》, 이것은 온 남녘겨레의 한결같은 심정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개천절기념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인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의장인 최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관계부서 임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 개천절기념행사 진행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이어 윤정호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천리혜안의 선전지명과 과학적인 통찰력, 정력적인 령도로 신화적존재로만 전해오던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떨쳐주

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룡성변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한 분별로 고통과 재난을 겪고

있는것은 참수수 없는 비극이라고 하면서 그는 민족의 피와 애국의 땀을 지닌 조선사람이라면 불멸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인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겨레가 이 땅위에 존엄높고 무궁변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민족의 재앙거리를 지체없이 제거해야 한다

## 전쟁을 부추기는 대결광신자의 추태

사람의 혀는 복과 함께 화도 불러들인다. 사람의 몸에 붙은 혀는 하나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복이나 화를 불러들이는 묘한 것이라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은 《한마디의 금언》이 긴목을 구원한다.》, 《짧은 혀 긴목의 울가미가 될 수 있다.》며 혀의 신중성을 논했다.

최근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혀의 신중함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해서 뱀이 나오는지, 구렁이가 나오는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구린내나는 악담을 늘어놓아 온 겨레의 지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지난 1일 박근혜는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데서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핵역력 강화조치들과 자위적인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다 못해 《북이 남쪽국민에게 핵사용을 공언했다.》는 헛나발까지 함부로 붙여댔다. 지어 그는 무엄하게도 《공포정치》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내외가 그토록 반대하는 《씨드》배치망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적조치》니 뭐니 하는

요설로 합리화하면서 《단합해야 한다.》느니, 남조선 《지켜야 한다.》느니 하는 가소로운 너두리도 빼놓지 않았다.

이것은 핵강국의 당당한 전략적지위를 차지하고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에 완전히 기절초풍한 산송장의 가소로운 너두리이다.

여기에는 더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른 저들의 통치위기를 어떻게 해서나 해소하고 실패한 동족대결정책을 가리워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남조선집권자의 교활하고 비열한 술책이 비껴 있다. 또한 《씨드》배치를 계기로 폭발한 남조선 인민들의 반전, 반미, 반《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속심도 깔려있다.

문제는 박근혜의 극히도 발적인 이번 망발이 조선반도의 정세와 북남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몰아온다는 데 있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다치면 터질듯 한 핵전쟁발발전야의 위기에 놓여있으며 북남관계는 더는 수습할 수 없는 험악한

파국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동족대결시정책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사실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북남관계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최근에는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손잡고 나갈 데 대한 진정어린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동족의 그 모든 제의와 선의의 손길을 뿌리치고 의세와 함께 《핵포기》, 《체제붕괴》를 위한 제재와 압박소동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나중에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느니, 《지휘부제거》니 하는 폭언을 늘어놓다 못해 《대통령》이 나서서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헐뜯으며 《붕괴》나발을 붙여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껏 박근혜가 기회를 때마다 공화국을 헐뜯는 소리를 함부로 뱉어 놓았지만 이번처럼 공개석상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악담들을 한바리에 쓸어 모아 악의에 차서 짓어댄

적은 일찌기 없었다. 오강 투쟁같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무엄한 악설을 짓어댄 박근혜의 이번 망발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이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말기증상에 이르렀다는 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가이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의 각계가 박근혜의 망발을 두고 《직접적, 공격적기념사》, 《가슴속적이고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등으로 락인하며 규탄해나서겠는가.

동족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말기증상에 이른 박근혜의 도전적인 대결악담으로 하여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는 다치면 터질듯 한 최악의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북남관계에서 사실상 남은것이란 불과 불이 오가는 것밖에 없게 되었다.

찾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온 동네를 소란시키는 미친개는 때려잡아야 하듯이 민족에게 해된 것만 플라하는 청와대악녀는 품을 들여서라도 명줄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핵전쟁의 불행과 재난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다.

부연하건대 박근혜가 제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하려는 더러운 그 개주둥이에 든든한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신기복

## 미친 할망구의 광대나발

《북주민여러분,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조선군의 《대북심리방송》에서 울린 소리가 아니다.

다름아닌 집권자 박근혜가 그 무슨 《국군의 날》의 《기념사》라는데서 떠벌인 것이다.

경악할 망발이지만 한견으로는 참 가련하기 그 지없다는 생각이 든다.

《북붕괴》에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했으면 《대통령》이라는 체면도 벗어던지고 《대북심리방송》 방송원의 아양을 흉내내기 까지 하였는가.

집권하여 통일에 관심있 듯이 들으려왔던 《신뢰프로세스》나 《통일대박》이 세계의 웃음거리로 되자 로골적으로 《북붕괴》를 고아대던 박근혜이다.

미국어른들이 도와주면 쉽게 《붕괴》되리던 공화국이 핵강국으로 더욱 강건하게 솟구쳐오르자 악이 오를대로 올라 《북초도화》니, 《선제타격》이니 말 나가는데로 뱉어 놓고 《북을 흔내달라.》고 받가는데로 싸다니며 구걸질이다.

그것마저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 제 몸값

에 어울리지 않게 방송원 노릇도 서슴지 않게 된 것이다.

하긴 다 늘어빠진 주제에 의세에만 아양떠는 정치매춘부, 개성공업지구마저 서슴없이 폐쇄하고 북남관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대결광녀의 몸값이 얼마나 되었는가.

까마귀주둥이에서 까옥 소리가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있는데 까마귀가 꼬꼬리소리를 흉내내는 격이니 더더욱 흉물스럽지 않은가.

《자유로운 터전》? 남조선에 《자유》가 있다면 1%의 권력자, 돈있는자들이 99% 서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며 부정부패, 사기협잡, 부화방랑할수 있는 자유이다.

지금 남조선민심을 분노로 끓게 하는 미르, K스포츠재단사건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반면 절대다수의 인민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 삶을 포기해야만 한다.

아니,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문제나 백남기농민의 사망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태도가 보여주듯이 죽어서도 안식을 가질 자유조차 없는 지옥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개한민국》, 《망한민국》, 《헬조선》이라고 침뱉고있으며 《국적포기》, 《이민》현상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그런데도 썩어문드러진 정치로 남조선을 부패의 시궁창, 인권수렁탕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가 대

명천지에 까마귀 백로되 었다는 흰소리를 쪼고 까 불고있다.

인간세상의 지옥같은 남조선이 《자유로운 터전》이라면 지구상의 천당같은 공화국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는지 동서고금의 백과사전들을 다 들춰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의 너두리는 통일부와 정보원이 암암리에 감행하던 북주민유인, 랍치를 제가 도맡아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악담이다.

《북붕괴》를 위한 《대북심리전》을 앞장에서 지휘하겠다는 망발이다.

하지만 그것은 힘도 없는 늘어빠진 심신으로 동족과 한사코 해보겠다는 로망에 불과하다.

머리가 180°로 돈개 아니라 360°로 완전히 미치게 들었다.

애비가 이루지 못한 《반공》을 《북붕괴》로 이루어보겠다고 광대노릇까지 다 하고있으니 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재수없는 입》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한양 구하다 백남짜리 징을 깨뜨린다고 박근혜의 동족대결의 굶주리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남조선인민들은 잘 알고있다.

늘고 추한 할망구라고 가련하게만 불것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가져오기 전에 미친개 패듯이 한 시바빠 때려없애야 한다는 것이 현시기 남조선민심이다.

리성철

## 정신착란증환자의 대결악담

북남관계를 깨 깨 말아먹은 청와대마녀가 이제 우리의 핵에 정신착란증세까지 보이며 별의별 대결악담을 다 토해냈다.

그런다고 제네의 엄청난 대결력악이 조금이라도 가리워 지겠는가. 오히려 이번 악담

질로 북남관계를 최극단의 대결상황, 전쟁국면으로까지 몰아갔으니 그 후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박근혜에게 차례질것은 참혹한 징벌뿐이다.

전도교정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 쇠장대로 찍어 용광로에

박근혜가 우리 주민들의 삶이 어찌구저찌구 또다시 망녕든 망발을 내뱉었다. 인권의 불모지우에 허제비처럼 서서 누구더러 오라 말라 회떠운 수작까지 늘어놓았다고 한다. 틀림없이 정신착란 중에 걸린 추악한 물골이다.

무엇이 검고 무엇이 흰지 이제 초보적인 판별력마저 잃은것 같다. 아니 동족을 어찌보려다가 날로 승승장구하니 기겁하고 두는

이 뒤집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그래도 동족대결의 기질은 살아서 죽어가면서도 대결악담만 늘어놓는 청와대마귀녀이다.

감히 태양을 향해 샷대질을 해대며 허겁지겁 날뛰는 박근혜를 시뻘겍게 단 쇠장대로 찍어 이 글거리는 주체철용광로에 처넣고 싶다.

항해제철련합기업소 용해공 김명일

## 남쪽으로 갈것은 징벌의 불소나기

극심한 통치위기에 직면한 박근혜년이 거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데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대결폭언을 늘어놓았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역도가 아무리 손가락질해대고 미친 발작증세를 보여도 그에 귀 기울일 사람은 공화국에 한명도 없다. 오히려 북남관계를 전쟁국

면으로 몰아가는 대결악녀에 대한 분노와 징벌의 의지만이 더욱 백배해지게 될뿐이다.

가소롭게도 우리 주민들을 남으로 오라고 웨쳐냈는데 남쪽으로 갈것은 그 무슨 주민이 아니라 박근혜년이 다시는 지껄이지 못하게 할 징벌의 불소나기일 것이다.

평양화장품공장 직장장 김일경

## 비참한 말로는 시간문제

입에 게거품을 물고 우리를 걸고든 박근혜년의 망발에서 날로 승승장구하는 내 조국의 모습에 전율한 산송장의 비명소리, 미국의 정치머슴의 아우성소리를 들었다.

파멸의 나락에서 헤어나보겠다고 감히 동족을 걸고드는 박근혜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동족대결의 미친개가 아무리 짓어대도 우리는 정의의 핵무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민이 반목을 누리는 인

류의 리상향을 펼쳐갈 것이다. 미국의 주구인 박근혜가 북통이 터지게 사회주의만세소리를 행성에서 높이 울려갈 것이다.

봄평 제 울음에 죽는다고 미련한 박근혜는 풍수없이 나풀대는 제 혀로 제 목을 조이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침략적인 의세의 사환군이 되어 날치는 역적패당의 비참한 말로는 시간문제이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룡리1동 신장수

## 단평 암독사의 서툰 오그람수

지난 1일 박근혜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라는데서 《북의 핵미싸일보다 내부분열과 혼란이 더 무섭다.》고 뇌까리면서 《단합》해야 한 다느니 뭐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역시 파렴치성이 체질화된 역도만이 내뱉을수 있는 수작이라 해야 할 것이다. 회세의 파쇼독재, 《유신》의 후예, 독기어린 암독사로 악명을 떨치는 박근혜가 무슨 낫짜으로 《단합》을 운운하는가.

권력의 자리를 타고

않자마자 《보수세력결집》과 진보세력말살을 떠들면서 살기엔 폭압소동을 일으켜 남조선사회를 진보와 보수의 대결장으로, 몸서리치는 파쇼의 란무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남조선의 야당들이 저들의 독재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무작정 《친북파파》로, 《매국노》로 몰아대는 박근혜의 처사에 《편가르기식 국정운영하겠다는 의사》로 락인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

고있다.

그런데 박근혜가 《내부분렬》의 첨예한 대결국면이 조성된것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듯이 시치미를 떼며 탄전을 부리고 지어 그 무장본인이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남조선의 야당들이 저들의 독재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무작정 《친북파파》로, 《매국노》로 몰아대는 박근혜의 처사에 《편가르기식 국정운영하겠다는 의사》로 락인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

내기 위해 거리에 떨쳐 나서고있다. 날로 심화되는 박근혜라도정국에 놀란 역도가 《내부분렬》이니, 《단합》이니 하고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려고 꾀하고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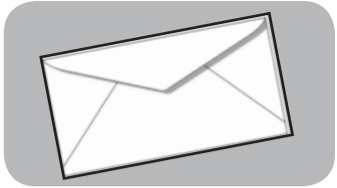
진보와 보수의 그 첨예한 대결이 제2의 《유신》독재의 종말로 막을 내릴 날은 멀지 않았다.

그런즉 역도가 아무리 오그람수를 부리며 민심을 희유하려 해도 그것은 부채로 안개를 몰아내려는 격의 헛수고일뿐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각 계층 인민의 목소리





# 미친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원래 편지는 안부인사부터 하는것이 관례라지만 미친년에게 인사는 무슨 개별... 굳이 해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싶다.

《닭그네야, 너 오늘도 살아 있나? 어제밤에도 지옥에 가는 꿈 꾸지 않았느냐?》

우리 나라 속담에 《미친년 방아찜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 너 요전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뭉쓸 방아를 또 찜었었느냐.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데서 공화국의 주민들을 보고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것》, 《언젠가(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하고 요 망스럽게 놀아댄것말이야.

시집도 못 가보고 아이도 못 낳아본 너의 운명이 하도 가궁하고, 또 더우기는 내가 살 날이 몇날 남지 않아 하도 불쌍히 여겼더니 아무래도 미친증이 더 심해질것 같구나. 그럼 실오래기같은 정신이라도 들 때 이 편지를 꼭 읽어보아라.

## 99%가 고통받는 그 생지옥에 왜 가겠니

네가 그토록 오라고 하는 《자유의 품》이라는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 안다. 1% 돈 있는자에게는 천국이지만 99% 돈없는자,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는것을. 부자는 웃고 서민은 우는 그런델 우리가 왜 간단 말이나?

네가 만백성의 기름을 짜내여 매다질해놓은 옥좌에 앉아 통치하는 남조선의 빈곤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중 8번째로 높고,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크는데 그런 구렁텅이에 우리까지 끌어들이려 할 하자는거냐?

언젠가 신문을 보니 51살 난 남조선의 김보비행장 청소로동자가 비바람속에 삭발단식통성을 하고있다는 비참한 소식이 실렸더구나. 사회의 낮은 곳에서 하루 11시간이상씩 쓸고 닦으며 삶을 이어온 이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청회사 직원이라고 온갖 차별을 당하는 모습, 이들도 한가정의 주춧돌인 엄마이고 안해이라고, 쪼꼬리만 한 권력을 앞세워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 멈추고 엄

마들의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고 쓴 글을 보며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더욱 사무치게 느꼈다.

이런 일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누리며 평등하게 사는 우리 공화국에선 상상도 못해. 여기서 권리도 평등하고 삶의 질도 평등하단다.

살기 좋은 낙원에서 사는 우리가 무엇때문에 사람 못살 남조선에 가겠느냐?

## 《자살공화국》, 말만 들어도 섬찝하다

내가 오라는 남쪽에서는 자살이 유행이라던데. 거기서는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닌 자살이 된지 오래됐고 한강다리에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명정도 되면서.

죽으려고 무색무취의 연탄가스를 마시는건 빗진 사람만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이 폐를 지어 가스를 흡입하고 취객이 되어 지하철에 훌쩍 뛰어드는 중년남자, 아파트에서 투신한 세 모녀는 또 어떤 비운의 자취를 참혹하게 바닥에 남겼느냐.

우울의 공황이 온 남쪽땅을 뒤덮고있는것이 한눈에 보여. 그런데 넌 이 위험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지 않나. 아니, 알고도 모르는척 하겠지.

살품의 가치를 따지고 시장생존의 능력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살인렬차를 몰아가는 너에게는 그 많은 생명의 탈락이 충격과 공포로 느껴지지 않을수밖에.

그러니 수백명의 아이들이 수확력행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어도, 금쪽같은 자식들이 군대가서 집단폭행으로 죽어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동재해로 죽어도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는것이겠지.

나이와 성별, 리념과 직업을 가리지 않는 사회적대형참사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땅에 우리가 죽으러 오란 말이나. 죽음이 배회하는 무서운 그 땅, 자살을 권하는 희망없는 그 땅으로 어느 누가 가겠느냐.

## 《헬조선》, 《탈조선》, 제 집걱정이나 해라

한때 너네 젊은이들속에서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60가지 이유》라

는 동영상이 유행되었다지. 이들 삶의 질 꼴찌, 로인빈곤률 1위, 머물면 《이태백》, 나가면 《이티백》으로 불리우는 청년빈곤실태, 출생률 세계 최저... 이런 지옥에서 누가 살겠다고 하겠니.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자유로운 터전》은 울음바다였었지. 《세월》호가 침몰한것처럼 《한국》호도 침몰하고있다고 했지. 너의 《한국》이라는것은 지금 가라앉는 배야. 박근혜가 선장으로 있는 그 배에 탄 국민들의 운명이 불쌍하기만 해.

그런데 우리보고 그곳으로 오라고.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단위로 해서 살고있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 애착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야.

내가 오라고 하는 공화국의 공민들은 누구나 자기 일터와 고향,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긍지로 살아가고 있단다. 세상에 애국을 말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없지만 조선의 애국주의는 남녀로소모두의 가슴에서 불타는 최고의 애국주의야. 지금 북부괴해복구전투에 온 나라가 떨쳐나선 것도 그때문이지.

헌데 네가 더 망해가게 만드는 남쪽땅에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라는것이 있나?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적원성과 개탄의 소리만이 울려오지 않나. 오죽하면 그런데서 못살겠다고 《헬조선》, 《탈조선》이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최근 10년여간에만도 《국적》포기자수가 21만여명이나 되겠니.

망하는 《한국》, 사람들이 탈출하는 《한국》으로 우리더러 오라고?! 머리가 돌아도 한참 돌았지.

## 정의없는 암흑세상에는 천만금을 주어도 안가

네가 《희망》이니, 《삶》이니 하며 쿠창한 남쪽세상은 정의없는 암흑세상이야. 진실도 정의도 가리워지고 돈과 권력만 쥐면 가해자도 피해자로 되는 거꾸로 된 세상이지. 수백명의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들고도 수년이 지난 오늘도 유족들이 애타게 요구하는 진상규명조차 못하게 가로막는 사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 백남기농민에게 물대포를 쏘대며 죽게 만들고 이제와서는 폭력범죄를 가리우려고 시체에마져 칼을 대는 야수의 무리들이 권력을 쥐고있는 썩은 사회가 바로 너희네 세상이야. 죽음을 안아오는 《싸드》배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들과 지어 야당정객들마저 《북에 동조》하여 《안보불안을 야기》시키는 《종북》으로 몰아대는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니.

정의는 불의로 매도되고 불의와 매국은 《정의》와 《애국》으로 둔갑하는 썩고 병든 세상이어서 독재여당이 《국회》에서 항의통성을 벌리고 그 대표라는자가 《단식》을 연출하는 희귀한 풍경도 연출되고있지.

18세기 유럽의 고전철학자인 칸트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격언을 남겼단다. 내가 하는 《정치》를 보면 왜 이 말이 계속 생각나는지... 인간세상은 정의가 있어 빛이 있는것이야. 그 정의라는것이 찾아볼래야 볼수 없는 빛이 없는 《한국》으로는 개도 더러워서 가지 않을게야.

## 《탈북자》도 후회하는 그 곳으로?

어느 한 《탈북처녀》가 쓴 글이 생각나는구나.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하루가 허무하고 외로웠다. 잘살고있어서 왔지만 너무도 힘든 현실이었다. 후회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했다. 내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져갔다. 힘들고 외로울때면 고향생각이 많이 난다. 《한국》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건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북과 너무나도 다른 이윽판게다.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이 흐르곤 했다.》

너희들이 《자유의 품》으로 찾아왔다고 떠드는 《탈북자》들의 처량한 모습이야. 너도 이 글을 보았겠지. 그들은 속히유, 혹은 잘살아볼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남쪽에 갔다가 약육강식의 장글사회에 갇히워 인간의 존엄과 생을 짓밟히고 떠나는 고향과 공화국을 그리며 후회의 눈물만 떨구고 있다고 하더구나.

이제 《자유》와 《인권》을 떠드는 너희 남쪽세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

분계선너머의 이곳에서는 아직 생활은 풍족하진 못해도 오늘에 대한 궁지가 있고 매일에 대한 불안이 없어. 모두가 희망찬 포부를 안고 미래를 내다보며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가지. 내가 우리를 보고 남쪽으로 오라고 하니 너네 정치인들도 《실제로 남에 와있는 (탈북자) 들은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싶어한다. (정부)는 (탈북자) 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그들의 존엄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것은 말뿐이다.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사실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것이다. 부디 철지난 똥이장군놈이를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조소했더구나.

제발 《남으로 오라.》는 소도 웃을 회떠운 수작은 그만하고 공화국의 현실을 다시 투시해보았으면 한다.

## 그 위험천만한 땅으로 오라고?

우리의 핵이 미국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최대로 고도화되었음을 박근혜 너자신도 잘 알고있을테지.

핵이 있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 미국의 핵전략폭격기가 군사분계선상의 하늘을 돌아치고 핵항공모함이 동서해에 밀려들어도 우리는 후호도 놀라지 않아. 그래서 배심든든하여 평화적건설도 하고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것이지. 그런데 네가 오라는 남조선은 어떤 곳이니. 지구상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니냐.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매일같이 날아들어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규모 전쟁연습불장난 때문에 하루도 편안할 날 없는게 남쪽땅이 아니냐. 미국의 핵은 남쪽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것이 아니라 핵확화를 띄워주는 무서운 무기이지. 그 재앙의 핵을 항시적으로 끌어들이 핵전쟁 불구름을 몰아오고 남녘인민들의 안전도 해치고있는것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뇌까린 내가 아니냐.

거기에다 미국핵을 믿고 민충이 썩대우에 올라간것처럼 《응징》이니 뭐니 하며 날뛰어 남조선을 더욱 불안하게 만

드는것도 너 박근혜이지. 수소탄까지 손에 쥔 핵강국을 상대로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응징》이니,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며 대결관동을 부리는 바람에 서늘이 불바다가 되고 온 남녘땅이 재더미가 될수 있다고 너희네 정치인들도 우거지상이 되어있더구나.

네가 미국상전이 하자는데로 《싸드》배치를 결정한 《덕분》에 남조선사람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를 국적불명의 핵무기들의 공격목표로까지 되어 불안감은 말이 아니더구나. 전쟁이 나면 죄많은 권력자, 부자들은 다 도망가고 힘없는 백성들만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항간의 소리를 우리는 여기서도 똑똑히 듣고있어.

그런 위험천만한 그곳에 오라고 하니 호박쓰고 돼지우리에 들어오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냐.

세상은 넓고넉지만 우리에게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단다. 사상도 제일, 정치도 제일, 사회도 제일, 사람들도 제일, 삶도 제일, 국력도 제일...

너희 《한국》땅엔 뭘 불것이 있나? 다 썩어문드러지고 망해가는 굴종의 세상이 좋다고 할것은 천치, 바보들뿐이야.

그런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에는 리성과 분별력이 있으면 갈수가 없어.

존엄에 살고 미래에 사는 인간이라면 갈수가 없지.

그런 갈수 없는 암흑세상에 오라고 하니 넌 사람들이 말하듯 미친 녀인이 분명해.

지금 남조선의 인터넷들에선 미친 네 지껄임을 두고 평장히 란리가 났다지.

《암담한 (대한민국)에 오라는건가?》, 《젊은이들이 못살겠다고 이민가는 나란데...》, 《국민들 걱정 먼저 해줬음 좋겠다.》, 《(탈북민)에 대한 배려나 정책은 없으면서 무조건 오라는건가?》... 참으로 기가 막혀서.

나는 편지의 마지막으로 파렴치한 현실기만, 여론기만의 네 꾀변을 뒤집어서 남녘주민들에게 이런 바른 소리를 해주 고싶구나.

《조선사람으로서 정녕 인간답게 살고싶다면, 대결광의 련달은 망발로 밷어질 전쟁의 참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청와대의 미친 박근혜를 들어내야 한다.》고.

김준경

# 선 불 질의 대가는 참혹한 자멸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위험이 더욱 짙어지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유도탄구축함 《스프루언스》호와 해상순찰기를 조선동해에 들이밀어 남조선해군 유도탄구축함들과 함께 공화국의 최고수비부청사와 념변핵시설, 주요전략로케트기지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벌려놓았다.

오는 10일부터는 남조선의 동서해와 남해에서 미항공모함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미국남조선연합해상훈련을 벌릴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의 알라스카에서는 공화국을 겨냥한 《레드 플래그》다국적공군훈련이 벌어지고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남조선군의 전투기들이 동원되고 있다.

련합해상훈련과 공군훈련의 목적이 공화국의 최고수비부청사와 주요전략기지들에 대한 《선제타격》, 《정밀타격》에 기본을 둔다고 한다.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자

위적핵억제력의 위력에 얼마나 겁에 질리고 당황망조해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세상이 들썩하게 《선제타격》이니, 《정밀타격》이니 광고하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는것은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의 의의를 깎아내리고 저들의 침략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련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한편 남조선졸개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동족대결에 계속 광분하도록 부추기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초진장시켜 침략의 기회를 얻어보자는데도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장자의 꾀기가 아니라 약자의 허세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킨다고 하여 핵강국인 공화국이 자위의 핵억제력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무너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침략책동,

핵전쟁책동이 종식되지 않는 한 더욱 굳세고 당당하게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여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나갈것이라는것을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이라는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구름이 질으면 비가 내린다는 말도 있듯이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도발이 순간에 전쟁으로 번져질수도 있다.

많은 경우 전쟁은 예고를 하고 시작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은 인류전쟁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침략자들의 《선제타격》론, 《북초토화》망동을 가소롭게 여기면서도 순간도 멸적의 총대의 긴장을 풀지 않는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한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선제타격》, 《정밀타격》

망동을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무진막강한 공화국의 군력은 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길 시간만 기다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공화국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빈말을 모르는 정의의 군사강국이며 한다면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징벌을 내리는 백두산강군을 가진 나라이다.

《선제타격》은 미국만의 선택이나 특허가 될수 없다.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사소한 침략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도발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불바다에 잠기게 할것이다.

자비를 모르는 정의의 핵외성이 울리면 침략의 기회가 아니라 반성할 기회마저도 차례지지 않을것이다.

선불질로 차례질것은 비참한 종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리 어 금





# 부나비의 말로는 명백하다

지난 9월 30일 남조선 국방부는 론난담던 《싸드》 배치지를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부지로 최종확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니, 《더이상 최적이 없다》느니, 《최종적이다》느니 뉘나 하고 못박았다. 그런가하면 지난 1일 박근혜도 《북이 각종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있다》느니, 《국민을 위협에 노출시킬수 없다》느니, 《《싸드》배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공화국의 핵무력 고도화에 기적초봉한 역적패당의 비명소리이며 《싸드》를 한사코 끌어들이려는 발악적술책이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싸드》의 남조선배치결정은 그 무슨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대아시아배 전략에 따른것이며 박근혜당의 친미사대, 대미굴종의 산물이다.

공화국은 물론 잠재적인 적수들을 미사일방위체계

로 포위하여 군사적우위를 차지하며 그에 토대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적기도이다.

이미 일본과 1998년부터 미사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해온 미국은 2006년에는 요격미사일의 공동생산에 들어갔고 2010년까지 일본전역의 11개 기지에 《패트리오트 3》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혼수섭에 전과람지소를 설치했다.

그후 주변대국들로부터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조선에 눈독을 들이면서 이곳에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적요소로 되는 《싸드》를 배치하기 위해 음모로양으로 책동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2012년부터 남조선에서 《싸드》배치를 위한 후보지조사를 몰래 진행한것이 이를 잘 보여 주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을 방문한 미사일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인 미국의 한 교수는 어느 한 모임에서 《수집한 정보를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제공하는것은 《싸드》의 기본기능이다. 《싸드》와 미사일방위체계는 분리할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싸드》레이

다는 약 4 000km까지 관찰할수 있다. 《싸드》레이더를 종말모드로만 사용하면다는 주장은 땅크를 실전배치하고 거기에 장착되어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꼬집어 말하였다.

《싸드》가 남조선을 《방어》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공화국은 물론 주변 나라들을 감시추적하고 위협하며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야망실현에 필요한것이라는것은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당은 눈감고 아옹하는 격으로 《싸드》가 《북의 핵과 미사일만을 대응하기 위한것》이라고 우겨대면서 끝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역적패당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적극 추종해 나선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전략적이익실현의 공간으로 서슴없이 내맡김으로써 상전의 환심을 사고 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여 북침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자는 속심에서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뿐 아니라 국제사회계는 《싸드》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과 패권전략실현을 위한것일뿐이라고 폭로단죄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에 서는 조선반도와 동

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최악의 긴장상태로 몰아가는 《싸드》배치결정을 두고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 《《싸드》를 끌어들이는 것은 스스로 재앙거리를 만드는것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결사반대하고있다. 주변국들도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응당한 대가를 치를것이다.》, 《《한》반도 《싸드》배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 《첫번째 핵타격대상이 될것이다.》, 《절대로 가만있지 않겠다.》 등으로 강경대응해 나가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싸드》의 남조선 배치문제로 풍전등화의 신세에 처하고 각방으로 녹아날것은 남조선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대결에 환장한 역적패당은 구태의연한 《북핵 미사일》타령만 늘어놓으면서 내외의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재앙단지를 남조선에 기어이 끌어들이려고 발광하고있다.

불을 즐기던 부나비 끝내는 그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동족대결살의 더러운 목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기 위해 온 남녘겨레와 세계가 배격하는 위협천만만 《싸드》를 남조선에 끌끌내 끌어들이려고 발광하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사대매국 《정권》이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은 남조선에 《싸드》배치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저들의 더러운 진명도 분분초초를 다루게 된다는것을 푹바로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 시

# 살인마는 누구냐?

김 송 립

미친듯이 쏘아댄 물대포에 정신없고 쓰러져 317일간 빈사의 긴 날과 날을 헤메이더니 끝끝내 한을 품고 갔구나 70살을 눈앞에 둔 백남기 그 농민이

민생과 생존을 애타게 절규한것이 그가 죽어야 할 리유였던가 민중의 숨줄을 끊으려는 악정에 맞서 시위에 나선것이 죄란 말인가 누구냐 무고한 인명을 무참히 앗아간 살인마는

사정없이 물대포 휘둘러대며 땅에 내동댕이친 무자비한 경찰강패 하지만 남녘의 민심은 푹푹히 본다 그 강패의 등너머에 도사린 독사 경찰들을 살인어로 부추긴 청와대악녀의 광기어린 몰골을

바란것은 민생뿐이었던건만 그 악녀가 준것은 살생의 물대포 세례 말끝마다 침마르게 떠들어댄 《민생 정치》

이느 민생을 죽이는 살인정치 무고한 농민을 무참히 죽이고도 눈섭 하나 떨지 않은 청와대의 마녀

은 남녘이 눈물로 조상의 꽃을 들 때 또다시 그 시신마저 부검하려 시퍼런 칼을 빼드는 박근혜당

차디찬 바다속에 애어린 꽃망울들 수장해버리는 땅 늙은이마저 무참히 살해되는 땅 이것이 바로 《민생복지사회》나 《유신》의 철퇴에 싸늘히 식어가는 《민생말살의 지옥》이 아니란 말이나

어이 알라 레일은 또 누구의 목숨이 악녀의 희생물이 될지 어느 집 처마아래서 무고한 죽음을 두고 곡성이 터져나 올지 저 남녘의 그 어디에선가 한품은 싸늘한 시신들이 나질지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제논엔 피가 난다 했거늘 민중이 흘린 눈물만큼 박근혜—그 독사의 몸통이에서 최악의 검은 피 팔팔 쏠게 하라

무고한 목숨들 무참히 도륙낸 《유신》마녀의 살인 《정권》 그대로 두고선 더이상 못살아 오, 남녘에 분노의 퇴성이 친다



서울 인왕산아래 《푸른 기와집》이 한채 있고 거기서 박할멈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할멈이야기를 할가요. 박할멈은 참 피뻘한데 인사하는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밤새 편안했나요.》라고 하는데 박할멈은 《수첩인사》를 합니다.

《푸른 기와집》에 들어서자마자 《락하산인사》, 《회전문인사》, 《나 홀로 인사》, 《개구리인사》, 《독판치기 인사》만 합니다.

누가 써주었는지, 아니면 나쁜 머리때문에 써넣었던것인지 《수첩인사》를 하는 박할멈의 《인사》때문에 《인사》를 받은것들 역시 다 박할멈처럼 육을 먹었습니다.

윤창중인지 뉘지 하는 놈만 보아도 박할멈따라 나들이가서 인사대신 처녀의 영당이에(이렇게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싸인》을 하고 술한 육을 치먹은것은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어디 윤창중만인가요. 제 소리는 못하고 박할멈의 《어버버》소리만 외워 병신소리만 들은 윤병세도 그렇고 한

일도 없이 긴 세월 재난만 걸머진 류길재, 상표이름에도 적합치 않은 홍용표, 《푸른 기와집》의 기강을 세우는데서 새로운 《병기》로 쓰려 했던 리병기 도 박할멈때문에 술한 끈경과 육만 치먹었답니다.

인사소리는 그쯤하고 박할멈이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하니 《내 꿈이 이루어지는》입니다.

흔히 늙은이들은 《옛날에》, 《내가 젊었을적에》 하고 이루지 못한 꿈이야기를 자식, 손자들에게 자주 합니다.

그게 새 세대들에게 맞을새 말이지 허망하고 황당한 꿈이야기는 오히려 귀만 솔갑게 합니다.

박할멈의 꿈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저주하는 《유신》이야기, 《알라딘의 마술등잔》이야기같은 《중동으로 가라.》나 《신데렐라》의 환상처럼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돕는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사람들이 어처구니없어 하니 즐겨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이 말은 박할멈이 《세월》속에 찾아낸 《명언》입니다.

이제부터는 박할멈의 식성에 대한 소개입니다.

—좋아하는 술은 《공주》(《얼음공주》던 《독사공주》던 지어 《청개구리공주》던)던, 싫어하는 술은 《광주》(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리는 속에 마시는 《광주》는 특별히 질색함).

—좋아하는 료리는 회류인데 이전에 즐기던 회는 《7인회》(가끔 맛보기도 함), 《푸른 기와

일체 말을 듣지 않아 주사맛기를 좋아하는데 《불순》을 제거하는데는 《동합진보당》, 《쇄신》하는데는 《새누리당》을 점적한다고 합니다.

또 음악이 범치료에 효과적이라는것은 어디서 들었는지 약기를 실재없이 두들겨대는데 제일 좋아하는 약기는 《종북》이랍니다.

박할멈이 《종북》만 울리면 《검거, 련행, 구

이 몫시 《수집어》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는 박할멈은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판피아》, 《해피아》, 《군피아》, 《법피아》, 《선피아》, 《모피아》 등 박할멈을 따르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박할멈은 아이들이 아니라 짐승에 대한 애착도 유별난데 개를 특별히

게 《소통, 불통, 먹통, 강통, 닭통》이라고 지어 주었다나요.

한데 요즘엔 박할멈이 진도개는 게버리고 한민구라는 개를 특별히 사랑한다나 봅니다.

속이 상할 때도 있는지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소연 해봤자 진도개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멍멍 짖는 것밖에 모르는 진도개보다 《응징》, 《보복》, 《비상태세》, 《불바다》 등 자기

가 하는 말거나 흉내내는 한민구가 더 귀여웠던 모양입니다.

뉘니뉘니 해도 박할멈이 좋아하는 일은 화초가 꾸기입니다.

《푸른 기와집》의 이전 주인인 《MB할아범》과 취향이 비슷합니다. 신통한 화분이 없어 《국민대통합》이라는 그릇에 《복지》의 흙을 담아 《경제민주화》, 《광국화》라는 꽃을 심었는데 얼마나 약취가 나는지 부패한 《채벌》들이 날아 들고 사람들이 《행》(지옥)하고 혀를 찬다고 합

## 만필

# 《푸른 기와집》의 박할멈이야기

속, 재관》 등의 탈놀이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박할멈이 좋아하는 영화는 《선거쿠데타》, 《력사쿠데타》와 같은 활극인데 《정보원》이라는 별장에서 박할멈이 직접 《기획, 연출, 출연》하여 만든 과일은 《사과》.

—좋아하는 간식은 《저성과자》, 제일 싫어하는 과일은 《사과》.

먹어야 할것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할것만 골라 하니 오는 병, 가는 병 다 들렀다 가는데 그래서 박할멈이 골품 앓는다고 《푸른 기와집》의 주치의사도 말합니다.

장부해오는 《공약》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푸른 기와집》에 이사할 때 동네사람들이 진도개 한쌍을 선물했답니다.

밤도 개하고 먹고, 저녁 시간에는 일체 면회사절하고 개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참고 진도개에 대한 우스운 일화도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진도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박할멈이 머리가 안 좋더니 동네사람들에게 개이름을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했던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사람들이 박할멈의 취향에 맞

니다.

요즘에는 《통일대박》에 《복초토화》라는 새 품종을 심어보겠다는데 이름부터가 사람들의 맘에 들지 않아 고민하는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푸른 기와집》 박할멈에 대한 이야기를 몇가지 보았습니다. 참 상스럽고 천박하고 피뻘하고 독살스러운 취미와 습성으로 엮여진, 마치 동화나 우화속의 마귀할멈에 대한 이야기 비슷합니다.

이것 말고도 《리명박근혜》, 《닭그네》, 《바구네》, 《칠폰이》, 《페탄》 등 가지가지의 추악한 《전설》을 남긴 박할멈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박할멈이 동네땅신을 시켰다고 《푸른 기와집》에서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아예 쫓아내자고 욕을 합니다.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절로 죽는다고 동네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는 박할멈의 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박할멈을 저승길로 재촉하는 인왕산까마귀소리야 《푸른 기와집》우에 울려 퍼집니다.

《가오, 가오》 본사기자 김정혁